

## < 제 62회 변리사시험 3교시 지구과학 총평 >

월비스 지구과학 전임 박 준 희 강사

이번 제 62회 변리사 지구과학 문제는 매우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던 2024년 제 61회 시험에 비하면 매우 무난한 출제였던 바, 변리사 지구과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10개 모두 맞추셨어야 하는 수준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역별로 보자면, 지질학(고체 지구과학) 파트가 총 여섯 문제로 유난히 지질학 집중이 두드러졌으며, 대기과학 두 문제, 천문학 두 문제였습니다.

아래에 각 문제별 출제 영역과 High-End 지구과학 교재의 장별 출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문제	정답	교재	해당 파트
1	5	I	지진파 (P파, S파, PS시)
2	1	III	퇴적구조 (점이층리, 사층리, 연흔, 건열)
3	2	III	화성암 (화성암 표 상의 비교)
4	4	III	판구조론 (판의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부의 특징)
5	3	IV	지질시대 (절대연대 및 상대연대, 지질시대 구분, 표준화석)
6	3	II	대기 - 이론적인 바람 (지상풍)
7	4	V	천문 - 달의 위상
8	2	II	대기 - 안정, 불안정
9	3	I	지구의 크기 (에라토스테네스 방법)
10	1	I	천문 - 천체의 남중고도 계산

무난한 출제로 편안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되는 만큼, 이번 지구과학 시험은 자연과학적 소양 평가에 있어 변별력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늘 120%를 준비하고서,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바, 공들여 준비하신 수험생분들께 수고와 칭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지구과학이 대부분의 수험생분들께 확실한 점수 확보 과목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되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결과를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피로한 마음과 몸을 기특히 여기며, 끝까지 수고한 본인을 칭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 합격을 위한 의지를 다져, 새 계획을 진행하시는 생산적인 시간을 가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이상 제 62회 지구과학 기출 총평을 마칩니다.